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인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가 9월 8일 국회에서 열렸다. 보건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회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보건간호사 배치기준 '최소인력 → 적정인력' 개선 시급

### 지역사회 보건사업 이끄는 중추적 역할 보건간호사 '정규직' 고용 의무화돼야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대한간호협회·보건간호사회 주관

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양순옥 보건간호사회장은 "보건간호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보건소 관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생활터널 지역보건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는데 비해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은 20여년 동안 변화가 없었고, 사업단위별로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보건간호사를 최소 배치가 아닌 적정인력 배치로 의무화하고, 정규직으로 확보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으며, 새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건(지)소에서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부터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문종 국회의원(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김상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축사를 했다. 정진석, 김성태, 김정재, 김순례, 문진국, 송석준, 성일종, 김승희, 이종명, 전희경, 조훈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보건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개회식에 이어 '보건소 조직 및 사업의 변화' 주제발표를 한 배상수 한림대 의대 교수는 "신 공증보건 시대에서는 사회 정의와 건강형평성을 추구하며, 집단수준에서 건강결정요인이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보건사업은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례관리가 중요하며, 수직적·분절적인 보건사업을 대상자의 삶의 터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도 개별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벗어나 대상자와 지역사회 건강수준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간호인력의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한 한영란 동국대 간호학과 교수는 "보건(지)소에서 활동하는 보건간호사 중 비정규직이 4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용의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보건간호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총 8636명으로 정규직이 56.8%(4902명), 비정규직이 43.2%(3734명)로 나타났다.

한영란 교수는 "보건소 사업은 매년 늘어나고 업무는 급증한 데 비해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은 지난 20년간 변화가 없었다"면서 "지역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건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을 시행되는 업무의 양과 성격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적정인력 배치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강제규정으로 법제화해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최연옥 부산시 동구보건소장, 김경아 강원도 인제군보건소 진료팀장, 황은순 주간조선 차장,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 전문간호사 12개 분야 314명 배출

2017년 제14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12개 분야에서 314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양수)은 제14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9월 8일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kabone.or.kr)에 공고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개별 통보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최종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16명 △감염관리=24명 △노인=75명 △마취=6명 △산업=8명 △아동=6명 △응급=10명 △임상=21명 △정신=23명 △종양=54명 △중환자=33명 △호스피스=38명.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했다.

1차 시험은 7월 16일 치러졌으며, 396명이 응시해 312명(78.8%)이 합격했다.

2차 시험은 8월 20일 치러졌으며, 323명이 응시해 314명(97.2%)이 합격했다.

2차 시험 응시자에는 지난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올해 실기시험에 재응시한 인원이 포함됐다.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다.

올해 합격자 31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6832명이며,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1126명 △감염관리=

334명 △노인=2177명 △마취=70명 △보건=4명 △산업=144명 △아동=89명 △응급=287명 △임상=250명 △정신=371명 △종양=807명 △중환자=658명 △호스피스=515명.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 8164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1만4996명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의 4개 분야별 간호사(보건, 마취, 정신, 가정)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됐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모두 13개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상반기 노인 진료비 건보 진료비 중 40% 차지

#### 70세 이상 1인가구 중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이상 많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27만명으로, 지난해 5106만9000명에 비해 20만명(0.4%)이 증가했다. 노령화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100세 이상 인구는 3486명으로, 지난해 3159명에 비해 10.4%(327명) 증가했다.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27.9%로 지난해 27.2%에 비해 0.7%p 증가했다.

1인가구 중 70세 이상이 17.8%, 30대가 17.6%, 20대가 17.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1인가구 중 남자는 20만5000가구, 여자는 75만3000가구로, 여자 1인가구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정 기자 sjchoi@

### 고령 인구, 유소년 인구 첫 추월

#### 70세 이상 1인가구 중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이상 많아

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의 비)는 처음으로 100을 넘겨 100.1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95.1에 비해 5.0 증가했다. 노령화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100세 이상 인구는 3486명으로, 지난해 3159명에 비해 10.4%(327명) 증가했다.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27.9%로 지난해 27.2%에 비해 0.7%p 증가했다.

1인가구 중 70세 이상이 17.8%, 30대가 17.6%, 20대가 17.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1인가구 중 남자는 20만5000가구, 여자는 75만3000가구로, 여자 1인가구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혜진 기자 hjoo@

## 한국콜마가 만든 마스크팩

한국콜마 최고의 기술력을 담아  
마스크팩이 탄생합니다.

마스크팩 전문회사 콜마스크로 시작합니다.

kolmar  
콜마스크

